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0일 나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준공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유치기원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 전남도, 1조 2천억 규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 출범

전라남도는 2025년 30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산·학·연 기관과 함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를 출범, 성공적 유치를 통한 미래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핵심 거점 도약을 다짐했다.

출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노승정 단국대 명예교수,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신학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나주를 '대한민국 인공태양 연구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공동위원회 2명과 집행위원장 5명을 포함해 현역 국회의원, 언론사 대표, 향우회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학 총장, 기업체 대표, 과학기술 관련 국제연구기관장 등 1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노승정 단국대 명예교수,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김영록 전

정관계·학계·연구계 등 120여명 참여 나주 유치 올인  
미래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 다짐

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이 맡는다. 유치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집행위원장은 박진호 한국에너지공단 총장 직무대행, 나용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기만 한국에너지공단 교수,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김중석 무등일보 대표이사 가 나선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위해 ▲유치 당위성 대국민 홍보 등 유치 의지 역량 결집 ▲전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 ▲전남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 유치 노력 ▲정부·국회 협력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역할을 한다.

유치위원회는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인공태양은 인류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국가 전략기술로, 정부의 적극적 육성 필요하다. 전남 유치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민 모두의 뜻을 모아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전남에 유치하도

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공태양은 전남이 미래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라며 "전남은 한국에너지공대와 한전 등 670여 전력기업이 집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핵융합 연구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하는 유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도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에 유치되면 전문 인력 유입, 관련 기업 집적 등으로 2050년까지 200개 이상 기업 유치, 1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를 발표하고 제안서 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를 거쳐 11월 중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동취재부

## '유골함 침수'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 배수 개선 공사 시작 수로 정비·새 배수관 설치...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

유골함 침수 피해 논란이 불거졌던 국립5·18민주묘지(5·18민주묘지)에서 침수 사실이 확인된 2묘역을 중심으로 배수 개선 공사가 시작됐다.

30일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묘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 공사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공사는 낙엽 등에 막힌 기존 수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배수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리사무소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묘역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2017년부터 안장을 시작한 5·18민주묘지 2묘역에서는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발, 2023년 이래 유골자 유해가 담긴 유골함 침수가 3차례 확인됐다. 보훈부가 공식 파악한 연도별 침수 피해는 2023년 2기, 지난해 1기다.

침수된 유골함은 먼저 안장된 유골자의 묘에 별세한 배우자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파묘 작업을 하던 장례업체가 발견했다. 이후 물에 잠긴 유골함에서 유해한 꺼내 재장정한 뒤 다시 안장했다.

2묘역 침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비가 하루 20~30mm만 내려도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2묘역에서는,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빗물이 장기간 고이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유족들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5·18민주묘지 운동 4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17일에서야 5·18민주묘지 2묘역 내 안장 유골함이 침수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과와 함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추가 침수 피해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안장된 유골함을 다시 열어 야만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침수 피해가 확인되자 정치권에서는 유골함 침수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유족의 요청 시 안장상태 점검 근거 마련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 허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의 요청 시 안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립묘지 운영에 공식적으로 마련된다. 특히 침수 등 유골함을 중심으로 불거져온 문제들을 예방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기자

## 11월 1일부터 영암서 목재누리 페스티벌

만들기 체험·우드캠핑·생활소품 디자인전 우수작 전시 등 다채

전라남도는 생활 속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2025 전남도 목재누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달빛 아래, 목재로 피어나는 영암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려 목재를 통해 자연의 가치를 배우고 즐기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 1일 오후 2시,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와 공동으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영암군을 대표하는 임산물인 대봉감 나무에 도민의 소망과 염원을 매는 퍼포먼스와 전통한복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한복

패션쇼가 열린다.

행사 기간 중 주말에는 목재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목포시의 '목재버스 만들기', 순천시의 '편백 방향제 만들기', 구례군의 '똑딱똑딱 나무 목수체험' 등 7개 시군이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체험 부스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 가능한 '우드캠핑', 목재로 만든 자동차 경주 '우드그랑프리', 목재 퀴즈쇼 '도전! 우든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펼쳐진다.

/염선호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